

마르코 복음서 12장

포도밭 소작인의 비유(마태 21,33-46; 루카 20,9-19)

- 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“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활을 파고 탑을 세웠다.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 주고 멀리 떠났다.
- 2 포도 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,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.
- 3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.
- 4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,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.
- 5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 버렸다.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 버렸다.
- 6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,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. 그는 마지막으로 ‘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.’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.
- 7 그러나 소작인들은 ‘저자가 상속자다. 자, 저자를 죽여 버리자.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.’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,
- 8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.
- 9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?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.
- 10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?
‘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
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.
- 11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
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.’”
- 12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.

마태오 복음서 21,33-46 해설 참조.

향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(마태 22,15-22; 루카 20,20-26)

- 13 그 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,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.
- 14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.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

- 단하지 않으시고,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.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, 합당하지 않습니까? 바쳐야 합니까,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?”
- 1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?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 보여 다오.”
-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, “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?” 하고 물으셨다. 그들이 “황제의 것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- 17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,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.”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.

- 1) 마태오 복음서 22,15-22 해설 참조.
- 2) 그리스도인은 지상 국가의 한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.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 법이나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. 그러나 국가법이나 정책이 하느님 법을 넘어서 국민의 인권을 꺾어버리거나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는 위험성에는 반드시 경고하고,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.

부활 논쟁(마태 22,23-33; 루카 20,27-40)

- 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.
- 19 “스승님, 모세는 ‘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,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.’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.
- 20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. 맏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.
- 21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,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.
- 22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.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.
- 23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?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.”
- 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?
- 25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,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.
- 26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,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 보지 않았느냐? ‘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, 이사야의 하느님, 야곱의 하느님이다.’ 하고 말씀하셨다.
- 27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. 너희는 크게

잘못 생각하는 것이다.”

마태오 복음서 22,23-33 해설 참조.

가장 큰 계명(마태 22,34-40; 루카 10,25-28)

- 28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, “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?” 하고 물었다.
- 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 “첫째는 이것이다. ‘이스라엘아, 들어라.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.
- 30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.’
- 31 둘째는 이것이다. ‘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.’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.”
- 32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훌륭하십니다, 스승님. ‘그분은 한 분뿐 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.’ 하시니,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.¹⁾
- 33 또 ‘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’과 ‘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’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.”²⁾
- 34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, “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.” 하고 이르셨다.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.

1) 마태오 복음서 22,34-40 해설 참조.

2) 갈림 없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며,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.

1) 신명 4,35 :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,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.

이사 45,21 : 말해 보아라. 설명해 보아라. 함께 의논도 해 보아라. 누가 이것을 옛날에 들려주었느냐? 누가 이것을 예전에 알려 주었느냐? 나 주님이 아니냐? 나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.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.

2) 시편 40,7 : 당신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.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.

호세 6,6 :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.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.

아모 5,21-22 : “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. 배척한다.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.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.

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(마태 22,41-46; 루카 20,41-44)

- 35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. “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?
36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.
‘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.
‘내 오른쪽에 앉아라,
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.’”
37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,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?”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.

- 1) 마태오 복음서 22,41-46 해설 참조.
2)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시다. 곧 예수님은 참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느님이시다.

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(마태 23,1-36; 루카 20,45-47)

- 38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. “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.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,
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,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.
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.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.”

마태오 복음서 23,1-36 해설 참조.

가난한 과부의 헌금(루카 21,1-4)

- 41 예수님께서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,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.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.³⁾
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렘톤 두 닢을 넣었다.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.
43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.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.
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,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,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.”

3) 2열왕 12,9 : 사제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,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집의 부서진 곳을 직접 고치는 일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.

- 1) 많은 부자는 많이 넣었으나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렵톤 두 닢을 넣었다. 렵톤은 당시 유통되던 화폐 가운데 가치가 가장 작은 쇠돈이다.
- 2) 하느님의 관심은 단순히 헌금 액수에 있지 않으시다. 하느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가짐 곧 정성에 관심을 두신다. 하느님의 평가는 마음에 대한 평가이다.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. 그녀는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다. 그녀의 헌금은 하느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표시였다.